

지역 메아리



김제시 '10월 사랑, 마음을 담다'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김제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제시 거주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관심 고취 및 친숙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생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 사랑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주제로 '10월 사랑, 마음을 담다' 사진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9점을 2일 발표했다.

수상자는 장유진(김제여고), 김수민(원광보건대학교), 김미형(김제초), 김요한(호남대학교), 김예원, 김예은, 윤다희(김제초), 안효은(김제중앙초), 은준원(김제검산초) 등이며 대상은 김제여자고등학교 장유진양으로 결정되었다.

수상자들은 매일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어르신과의 활동사진,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사진, 세상에 하나 뿐인 소중한 동생과의 사진, 학교 놀이길을 만들어주는 엄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진 등을 접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이서면민의 날 열려

완주군 이서면(면장 주영환)이 이서면민의 날을 연다.

오는 4일 혁신도시 지사물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이서면민의 날은 '소통과 공감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서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초점을 맞추고,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기념식, 민민 화합 퍼포먼스 및 게임, 주민참여 기념공연, 민민 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러진다.

특히, 누구나 참여하여 쉽게 즐길 수 있는 '이서댄스'를 개발해 참가하는 모든 민민이 시연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날 군수표창에는 이장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송현수이서수안전협동조합 이사장, 강근우배드민턴강사, 허은자 이장, 최은경 부녀회장이, 민민의 장에는 박미정, 염창영, 최득용, 최미란, 강안숙씨가 수상한다.

이우중 체육회 기획이사, 유성희 승화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는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받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열린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

7일까지... 김제시민 누구나 응모 가능 공모분야 사회·정부혁신 해당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새 정부 초기 정책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인 열린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김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열린혁신(사회혁신, 정부혁신)으로 시민이 직접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행정서비스 위주의 정부혁신 분야가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온라인(국민신문고, www.epople.go.kr), 이메일, 팩스 방문 및 우편(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는 11월중 접수된 제안을 담당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시민참여, 시민체감도, 실현 가능성, 연속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

여, 최우수 1명(10만원), 우수 1명(5만원), 장려상 2명(각 3만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선정된 제안을 토대로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사업 추진을 확대함으로써 시민행복, 지역성장을 견인할 김제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배움의 열정,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김제평생학습한마당, 4일까지... 학습체험 등 3대 테마형으로

평생학습도시 김제시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제8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김제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배움의 열정, 행복이 꽃피는, 더 큰 김제!!'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규모인 128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학습체험과 무대공연발표회 등 3대 테마형 학습마당으로 꾸며져 그간의 학습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배움나눔의 장이 펼쳐진다

다양한 체험이 진행될 배움마당에서는 65가지 다양한 체험과 행복학습 성과나눔, 추억의 교실과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등 64개 팀의 공연발표가 연이어 이어진다.

이 밖에도 어울림마당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위한 한글골든벨, 성인문해 거리시화전, 4D 무비카VR 체험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도 꼭 채워

졌다. 학습으로 준비하는 행복한 미래실제를 위해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학습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는 학습기부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평생학습도시 김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평생학습의 주인공인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제8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에 김제시의 평생학습이 다 모여 배움을 나누는 학습의 장인 만큼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회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학습동참을 권유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지역으로 찾아가는 로컬에듀 공감토크 성료 완주군,진로·진학 강점 소개 시간 가져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로컬에듀를 이루기 위해 진행된 '2017 지역으로 찾아가는 로컬에듀 공감토크'가 마무리됐다.

2일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12개 지역을 찾아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만나는 공감토크는 지난 9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약 1500명을 만나 지

역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의 강점을 소개하고, 로컬에듀의 철학과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희정 교육이동복지과장은 "지역화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가 됐다"며 "이번 공감토크가 로컬에듀의 합한 발전음이 되고,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완주군은 이번 공감토크의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5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7 로컬에듀 포럼을 열고, 그동안 진행된 공감토크의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과 지난 2014년부터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로컬에듀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농기센터,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욱)가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2일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수확철 농기계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늦은 시간까지 농기계 작업을 할 경우 집중

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유형 중에는 핸들 불이 빠져 마주오던 차와 충돌(점점 미비), 흐리거나 이간작업 시 등화장치 점등, 수확

물 적재량 초과, 음주 후 농기계 조작, 막힌 짚 제거 시 엔지 미 정지, 논머리 버 탈곡 시 콤바인 정착 후 작업 등이 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농업용 기계·기구의 일상 점검이나 적절한 조작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중·일 도예작가 워크숍 성료

작업 노하우 공개·전통옹기 우수성 선보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에 소재한 부거리 옹기마을에서 진행되었던 한·중·일 도예작가간의 워크숍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행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부거리옹기장 안시성씨가 저명한 한국, 중국, 일본의 도예가들을 초청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작가들만의 작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2회째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한·중·일 작가의 전통옹기와 현대옹기의 다양한 성형방법에 관한 워크숍과 제작한 옹기를 가마에 재입하고 전통적인방법으로 불을 지피는 불타기 행사에서는 이진식 김제시장과, 정효영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강병진 도의원, 박두기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정성주, 김준진, 임영택, 이병철,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날 행사를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거리 옹기가마는 조선 후기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의 생계 수단으로 옹기를 만들어 팔며 형성되었던 부거리 옹기마을은, 당시 수십여개의 옹기가마가 있었으나 대부분 멸실되었으며, 그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옹기가마와 전통 작업장(등록문화재 403호)을 옹기장 안시성씨(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가 사들여 20여년째 그 전통의 명맥을 온전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이진식 김제시장은 "열악한 환경속에 전통문화는 지켜가는 부거리옹기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에게 행정에서 옹기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박차'

진안군은 2일 120억원 규모의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진안읍사무소 강당에서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개발 전문가, 지역주민, 지역의 관계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비롯한 주민 눈높이의 사업제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 유일의 통합지구사업인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20억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PM : Project Manager)을 구성했다.

또한 연계 및 협력 가능한 행정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 IT팀도 운영하는 등 행정과 주민, 추진위원회가 함께 눈높이를 맞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펼쳐 왔다.

군은 주민, 행정, 전문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안읍 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결하고, 진안읍을 통합적인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중심지, 농촌 경제와 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통합지구에 걸맞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진안읍이 진안군체를 살리는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명농산물 판매장. A large indoor market with various stalls and peop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행사문의' (063-430-2951).